

91. 3. 21

기초의회 여성후보 곳곳서 '분전'

전국 1백24명 출마

“여성법률상담 공간을 만들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소 설립 추진” “아이들 체위에 맞는 책·걸상을!” “도로옆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하겠다” “어린이·청소년 놀이공간, 노인 복지시설 확충”.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나선 여성 후보들이 지역의 교육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내세우는 공약들이다.

여성후보는 전제 입후보자의 1.

부부를 위한 탁아소 설치 '청소년 공부방 마련'을 제시했고, 강서구 목동에서 나온 조영희(43)씨는 '임대아파트 문제해결' '교통난 해결'을 제시했다.

인천시 송의4동의 이영환(50)씨는 “요즘은 암탉이 울면 황금알을 낳는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철거민 집단이주 지역인 인천시 북구 십정1동 산동네에서 출마한 홍미영(37·인천 해남공부방 운영)씨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

한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김씨는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2차 의료검사가 가능한 클리닉을 유치하겠다”는 의욕도 대단하다.

공해·환경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거는 여성후보도 많다.

경기도 부천시 성내2동에서 나온 최순영(39·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씨는 “신흥공업지역이라 공기가 탁하고, 공장 폐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우리 동네의 환경감시운동을 우리 스스로 펴자”고 제안한다. 79년 YH사건때 YH소

교육·환경문제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 호응 당락 관계없이 지속적 생활운동 정착 중요

2%에 불과한 1백24명이지만 공통적으로 '탁아소 설치' '과밀학급 해소' '원활한 쓰레기 수거' '노인정 설립' '청소년 놀이공간' 등을 내세워 “기초의회 선거다운 참신한 공약”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제주시 일도1동에서 나온 김미숙(31)씨는 “이 지역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이사철마다 오르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서 출마한 주부 김지순(39)씨는 '맞벌이

스문제 해결' '청소차 종이 울리면 쓰레기를 들고 나와야 하는 타종식 쓰레기 수거를 문전 수거식으로 개선' '탁아소·공부방·여성 상담실·노인정을 갖춘 주민종합복지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7동의 김혜경(46·난곡지역협의회 회장)씨는 도시민민운동6년 경험을 살려 “지역 재개발을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한다. 인구 3만여명인 신림7동에 종합의료검사를 받을 만한 큰 병원이

조 지부장을 지내기도 한 최씨는 △여성 정기건강진단제 △어린이 예방 접종제를 부천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이 만드는 생활필수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부천시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에 품질과 가격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야심찬 공약도 내놓고 있다.

대기오염 1번지 서울 구로갑구에서 출마한 주부 공해운동가 문수정(41)씨는 “아황산가스를 내뿜는 구로동 73개 공해배출업소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탁아소·놀이방·노인정 설치 등 생활과 직결된 여성 후보들의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인천시 북구 십정1동 합동연설회 현장.

다. 문씨는 또 92년 완공예정인 구로지역 전철 복선화로 뒤따를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3동에서 나온 허명화(44·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상임위원)씨도 밤낮없이 차들이 쉴새 없이 달리는 88올림픽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허씨는 또 “독일, 미국의 학부모회처럼 지역 주민들이 교육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 참다운 교육자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

약도 내놓았다.

농촌에서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는 “여성 후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주변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들 공약을 당선·낙선에 관계없이 여성단체·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인 생활운동으로 전개하면 참다운 지방자치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연숙 기자〉